



2022 아르코미술관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땅속 그물 이야기 *The Fable of Net in Earth*



Heritage Language: 세습 언어, 계승어(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그 국가의 언어가 제1언어이고 부모님이 사용하는 언어는 계승어)

ex. I was born in America, but my heritage language is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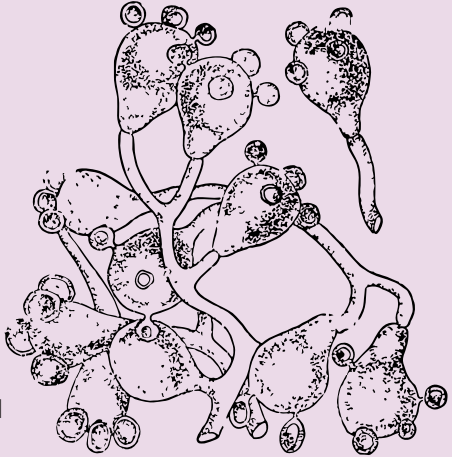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계승어는 한국어이다.

Heritage Language: An inherited language, a language that is passed down. For people born outside the country of their parent(s), the dominant language of their place of birth becomes their first language, and the language spoken at home becomes their heritage language.

ex. I was born in America, but my heritage language is Korean.

'Heritage Language'는 한국어로 세습 언어, 계승어, 유산 언어로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계승어라고 하겠다. Heritage Language Speaker, 계승어 화자는 넓은 의미 범주와 좁은 의미 범주로 나뉜다. 넓은 의미로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계승어를 배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언어와 민족·문화적 또는 기타 관련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수어와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파트너를 만나면서 수어를 배우게 된 사람이라거나 농인의 형제자매로서 소통을 위해 수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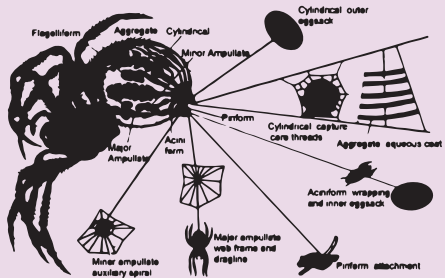
The English term 'heritage language' is translated in Korean to *seseup eonneo* (inherited language), *gyeseung-eo* (language that is passed down), and *yusan eonnoe* (legacy of language). In this text I will use the term *gyeseung-eo*. Heritage language or *gyeseung-eo* speakers can be divided in a broader and a narrower sense. In a broad sense, the term refers to anyone who has ethnic, cultural, or other ties to a particular language, regardless of whether they learned the language as a child.



For instance, someone who learns sign language after meeting a Deaf partner or who communicates with their Deaf siblings would fall in this category. In a narrower sense, a heritage language refers to a specific form of bilingualism, as in the case of someone who grows up with two languages

습득한 비장애인 형제자매가 이에 속한다.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형태의 이중언어로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라 서로 다른 이중언어를 습득한 경우다. 모국어를 습득하기 이전 또는 동시에 계승어를 배우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에게서 나고 자라, 집에서는 수어를 사용하고 집 바깥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농인의 자녀를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청인 자녀를 뜻한다.)가 이에 포함된다.

‘My Heritage Sign Dictionary’는 말 그대로 나의 계승수어 사전이다. 농인 부모로부터 수어를 모어로 배우고 집 바깥에서는 한국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사용했던 이중언어 화자의 기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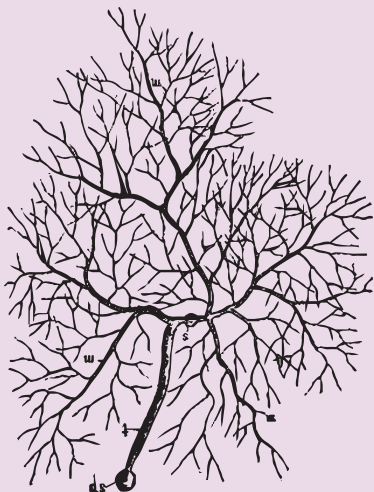


in their home and comes to acquire both. In this case the heritage language speaker learns their heritage language before or as they are learning their dominant language. Another example of heritage language speakers would be the Deaf or hearing children of a Deaf adult caregiver who signs, who grew up with signed language at home and spoken language outside the home. The children of Deaf parents are known as Children of Deaf Adults, or CODA. In this text I use the term CODA narrowly to refer to the hearing children of a Deaf adult caregiver.

“My Heritage Sign Language Dictionary” is a lexicon of the sign language I’ve inherited. It is also the record of a bimodal bilingual, as I learned Korean Sign Language, KSL from my parents but used spoken and written Korean outside home. And though I refer to it as a dictionary and have titled it as such, it is closer to a very personal and familiar archive of memories.

사전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아주 사적이고 친밀한 기억의 아카이빙이다.

사전의 단어 목록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변형되고 확장된다. 삶의 순간마다 계승어를 새롭게 떠올리고 낯설게 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재발견하기 때문이다. 이 사전에서는 단어와 연관된 몸짓과 행위, 행동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계승어의 종류가 시각언어인 수어이기에 수어의 모양과 움직임을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도 포함한다. 이는 시각언어와 음성언어를 넘나드는 이중언어 화자의 기록이자 일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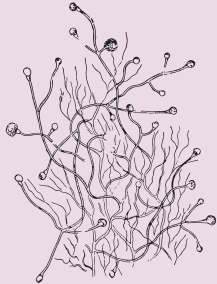


I continue to add and modify entries or expand upon them. This is mostly because life keeps throwing heritage signs that are new or can be seen in a different light, helping me rediscover individual signs of the ever-unfolding parameters of meaning. I detail the movement and action of the body that form each sign, word, or phrase in this dictionary of sign language. Images are included as well to deliver the shape and movement of the sign. And so my dictionary becomes a daily account and record of a bimodal bilingual who fleets between and, at times, combines visual-spatial-tactile and aural-vocal languages.

## 짜파게티

손가락을 벌려 양손을 크게 편다. 그 상태로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편다. 2-3회 반복한다.

이때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으면 의문문이 된다. 엄마는 두 손을 벌려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하며 의사를 묻곤 했다. 짜파게티를 먹겠냐는 거다. 고백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짜파게티라면 사족을 못 썼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짜파게티는 나의 소울푸드다. 타지에서 유학할 때 아시안 마트에 가면 빼먹지 않고 짜파게티를 샀다. 정말 힘들 때, 집에 가고 싶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먹었다. 그럴 때마다 이 단어를 떠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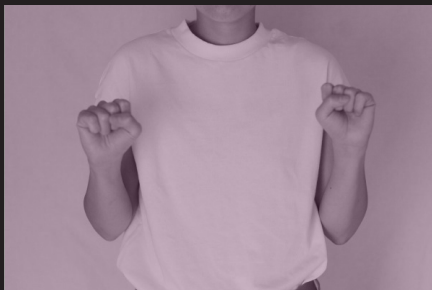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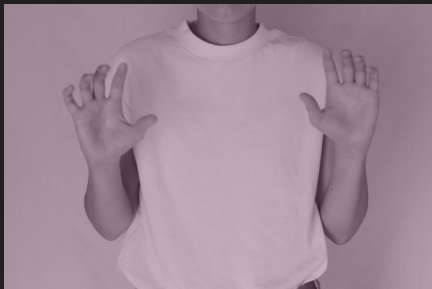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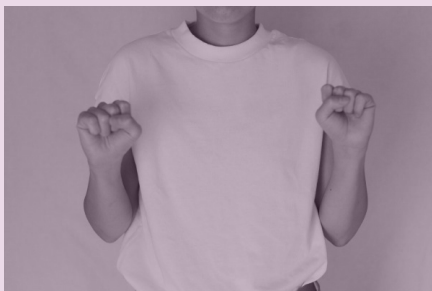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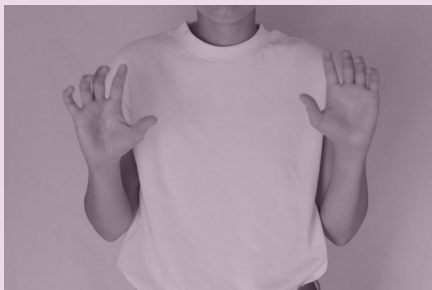
이 수어는 ‘한국수어’, 즉 공용어가 아니다. 농인 부모와 나 사이에만 통용되었던 홈 사인(home sign)이자 베이비 사인(baby sign)이다. 검지를 코와 입술 사이 왼쪽 부분에 대고 마디를 구부렸다가 펴며

## JJAPAGHETTI

Open your palms wide and stretch your fingers. Now clench both hands into fists, then open them wide again. Repeat two or three times.

Signing a specific word with wide eyes and raised eyebrows turns the sign into a question. My mum would do this as she opened and clenched her hands to see if I wanted some Jjapaggetti. I confess that since I was young, I could never say no to Jjapaggetti. I still can't—Jjapaggetti is my comfort food. While studying abroad, I'd make sure to stock it up every time I went to an Asian grocery store. It sustained me when I felt overwhelmed or homesick. It gave me relief and consolation from whatever was troubling me. And it would always remind me of this sign.

There's no sign for JJAPAGHETTI in KSL, it isn't part of the official lexicon. This sign is what is called a home sign and



오른쪽으로 향하게 움직이면 한국수어로 ‘짜장면’이 된다. 짜장면의 면발 모양과 색깔이 마치 검은색 콧수염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콧수염을 묘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라면’이라는 수어도 있다. 두 주먹의 검지와 중지를 펴서 입 쪽으로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모든 종류의 라면을 일컫는 수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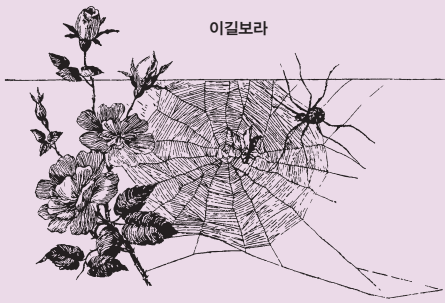
짜파게티는 짜장면과 스파게티의 합성어로 1984년 농심이 기존 짜장 라면의 단점을 보완해 내놓은 식품이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가사의 CM송이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짜장면을 몹시 좋아했는데, 매번 중국집 짜장면을 사 먹기 부담스러웠던 엄마는 짜장면 대신 짜파게티를 끓여주었다. 생각해보면 엄마는 짜파게티 요리사일 뿐 아니라 온갖 외국 음식을 척척 만들어내는 세계 음식 요리사이기도 했다. 고기를 사 탕수육을 튀기고, 면을 끓여 토마토소스를 부어 스파게티를 만들고, 밀가루로 도우를 만들어 각종 토핑을 올려 피자를 굽는 등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냈다.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요리했냐고 물으니 상상하며 조리하는 맛이 있다고 엄마는 말했다. 무지하게 맛있었다.

짜파게티는 짜장면을 인스턴트화한 라면이다. 기존 한국수어에

a baby sign, and it is particular to me and my Deaf parents. Place your forefinger to the left of the midpoint between your nose and upper lip and flex the finger as you move it over to the right. This is the sign JJAJANGMYEON. It's a sign that derives from the visible resemblance of jjajangmyeon noodles to a mustache. RAMYEON is signed by moving both fists, with the second and middle fingers extending out, in an upward motion toward one's lips, twice. The sign refers to all types of ramyeon.

Jjapaghetti is a portmanteau word that blends jjajangmyeon and spaghetti. Produced by Nongshim, Jjapaghetti has become synonymous with jjajang ramyeon since its introduction in 1984. The commercial music with the refrain ‘On Sundays, I’m a Jjapaghetti chef’ was a huge hit at the time too. I’ve loved jjajangmyeon since I was young, but my mum would make Jjapaghetti at home to be frugal rather than order restaurant jjajangmyeon. Thinking back, my mum

짜장면과 라면이라는 수어가 있지만 짜파게티를 일컫는 용어는 없다. 또한 두 개의 수어는 이제 막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며 수어를 습득하던 어린 내게 어려운 수어에 속했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만 사용하는 홈사인이자 간단한 제스처나 수어를 사용하는 베이비 사인을 개발했다.



손가락을 벌려 양손을 크게 폼다가 다시 주먹을 쥐는 동작은 신이 난다. 곧 짜파게티를 먹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수어를 할 때 엄마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고 설레고 들뜬 표정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엄마가 그 수어를 하고 눈을 크게 뜨며 나의 의사를 물을 때마다 신이 나서 어서 물이 끓기를 바랐다.

짜파게티를 먹을 때마다 종종 두 손을 펴고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물이 끓는 것을 바라본다. 엄마와 아빠로부터 배운, 우리 가족만의 수어이자 나의 계승어다.

wasn't just our resident Jjapaggetti chef, she was a world chef adept at cooking up all types of foreign dishes, whether it was frying meat for sweet and sour pork, boiling noodles and ladling tomato sauce for spaghetti, or making dough from scratch and scattering various toppings to bake pizzas. She'd make whatever we felt like eating. I asked her once how she was able to make dishes she'd never tasted, and she said she relished cooking with her imagination. Everything she made was always so delicious.

Jjapaggetti is the instant noodle version of jjajangmyeon. KSL has signs for JJAJANGMYEON and RAMYEON, but not for Jjapaggetti. Not only that, the two existing signs were difficult for me to master as a child still fumbling to direct the movement of my fingers. So my mum came up with this baby sign made with simplified actions.

It was fun to spread and clench my hands. It always got me excited, though whether that was due to hungry

## 팔 툃툃

손을 들어 상대방의 팔을 툃툃 친다. 때에 따라 툃툃 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팔을 잡아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팔을 치는 속도와 강도가 달라진다.



이 단어를 촉각으로 감지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든다. 짜증이 나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동시에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든다. 엄마는 손을 들어 나의 팔을 툃툃 친다. 이어지는 얼굴 표정은 궁금한 눈빛과 입을 동그랗게 내밀고 '뭐'라고 말하는 입 모양의 조합이다. 내가 탄청을 피우면 엄마는 종용하는 의미로서 주먹을 친 손에서 검지를 펴고 좌우로 흔든다. '무엇'이라는 수어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마다 엄마는 이 사인을 보낸다. 텔레비전에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중계하고

anticipation or my mum's bright, lively expression, I'm not sure. As soon as she signed this and opened her eyes, I couldn't wait for the water to boil.

As I make Jjapaghetti, I'll often sign JJAPAGHETTI to myself. I do this repeatedly as I stand over the cooker. This sign is particular to our family—in all senses, it is a word of inheritance.

## Tap the 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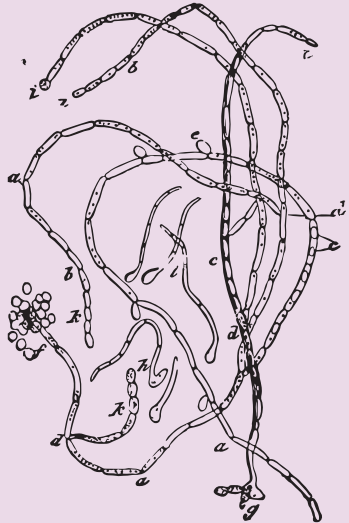
Raise a hand and tap the other person on the arm. You can do this gently, or you can clasp the other person's arm to send a stronger or more urgent signal. The speed and force of the taps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Whenever I notice this tactile sign, I feel several different emotions at once: annoyance, the feeling that I am duty bound



극 중 캐릭터를 연기하고 온갖 웃기는 말을 할 때마다 엄마는 내 팔을 친다. 통역을 해달라는 뜻이다. 엄마를 돕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싶거나 나만의 공간에 있고 싶을 때면 엄마가 보내는 신호가 정말이지 지겹다. 팔 좀 그만 쳤으면 좋겠고 팔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떨어지고 싶다. 감각에서 도망친다.

그걸 재발견한 건 최근의 일이다.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타지에서 살게 되면서부터다. 언어를 배우는 중이라 종종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모르는 단어들이 홍수처럼



to respond with an action, the desire to shirk obligation. My mum taps me on the arm. She raises her eyebrows and her lips make the shape 'o' as she mouths the word 'what'. If I ignore her or am slow to respond, she holds her fist with her forefinger pointing up and outward and shakes the finger left to right. This is the sign for WHAT.

My mum signs this repeatedly when we're surrounded by speaking people. When we watch the news presented in spoken Korean or a TV show full of spoken dialogue and jokes, she'll tap me on my arm. She'll tell me to interpret for her. Sometimes I feel like helping, other times I don't. Then there are moments when all I want is to be left alone to watch the show in peace or to be in my own space. On those days, the taps drive me crazy. I want her to stop, I want to distance my arm from her hand. I recoil from physical contact.

It was only after my experience of living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and using a language that was new to me that

범람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팔이  
먼저 움직인다. 옆에 있는  
파트너의 팔을 툭툭, 친다.  
얼굴을 보고 입을 움직여  
음성언어로 말하면 비효율적이니  
팔을 먼저 움직여 신호를 보낸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인



다.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 조급함, 답답함,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당연한 마음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다. 엄마가 내 팔을  
당연하게 미안하게 고맙게 조급하게 답답하게 찼던 순간을 떠올린다.  
손으로 팔을 치는 감각을 전달받는 사람에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된다.  
이제야 그 사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

I came to appreciate sign language and realize what it was to communicate. As I was still learning the language, I often felt stranded and unable to follow what people were telling me. As it turned out, when I'm flooded with words I don't understand, my arms tend to act first. Sometimes I wasn't even aware that I was tapping my companion's arm. But tapping was more efficient than turning to look them in the face and communicate with spoken words. When I became aware of this, I felt a mix of emotions: curious, impatient, frustrated, sorry, grateful, homesick, and a sense that people owed me an interpretation. I remembered my mum's hand on my arm, I imagined the emotions she too might have felt, knowing she was owed, being sorry, grateful, impatient, and frustrated. I'd only seen myself as being on the receiving end of this tactile sign, but now I use it to signal my own communication needs. I finally have a fuller understanding of its meaning.

## 열린 문

보일 듯 말 듯 문이 열려 있다. 상황에 따라 활짝 열려 있기도 하고 거의 닫혀 있기도 하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 어깨에 손을 올려 대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공간적 신호다.

방문이 열려 있다. 문틈 사이로 안의 형태가 보인다. 누군가 침대에 누워 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기도 하다. 시각을 통해 온전히 공간을 파악한다. 입으로 소리를 내어 청각이라는 감각으로 무얼 하고 있냐고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어깨를 톡톡 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한다. 시각언어가 공간과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때도 적용된다. 수어를 계승어로 사용하는 코다이자 청인인 동생과 함께 사는 공간에도 사용된다. 동생과 나는 방문을 뺄뚝 열어둔다. 완전히 닫지도 열지도 않은 열림이다. 사이로는

### An open door

The door is left open—sometimes wide, sometimes barely. This is a sign meaning you're always welcome to enter my room, rest your hand on my shoulder, and initiate a conversation.

The door is open. Through the crack, I can see the room inside. I can see if the person there is lying in bed or seated on a chair or changing out of their clothes. I have visual access to what is happening in that space. Instead of asking and answering with spoken words, I push the door open, enter the room, tap that person's shoulder, and look them in the face to communicate. In this vein, visual language relies on space as well as on one's senses.

This practice continued even after leaving my parents' place. In the home I share with my younger sibling, who is a hearing CODA and heritage sign language user like myself, the doors are left open. Just a little, so that it isn't fully open



음성언어를 던질 수 있게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문을 더 열고 시각언어로도 말할 수 있다. 어떤 언어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러다 자기만의 시공간이 필요하다면 문을 닫는다. 시각언어로는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시각언어 세계의 가능성이 닫힌다. 손으로 문을 두드려 소리를 내어 소통한다.

열린 문. 시각언어와 음성언어가 넘나들 수 있는 작은 공간.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통의 가능성. 공간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감각은 계승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동생과 나의 공간에 유산처럼 작용한다.



or fully closed. Words pass between us through that crack. If need be, we'll pull back our doors even more to add visual language. The opening allows for all modalities—it is a space of possibility. When we need space and time for ourselves, we close our doors. This blocks visual language. So as the door closes, the possibility of a visual language world closes too. That's when we knock on each other's doors to communi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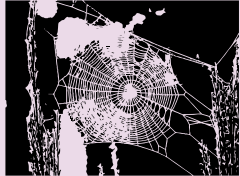
An open door: a space that allows the visual-spatial and vocal-aural modalities of signed and spoken languages to flow; a connection, an invitation to communication. Our spatial awareness, usage, and sense continue to inform our own space. This too, is our heritage.

## 너라고 손과 입으로 말하기

주먹을 친 손에서 검지를 펴고 상대방을 향해 가리킨다. 입을 벌려 ‘너’라고 음성언어로 동시에 말한다.

입을 다물고 수어를 할 때도 있지만 입을 열어 단어를 동시에 말하기도 한다. 주로 수어로 말하며 화낼 때 그렇다. 감정이 몸의 동작으로도 소리로도 폭발하기 때문이다.

단어 중심이다. 수어의 문장구조와 어순이 음성언어의 그것과 같지 않아 수어문장을 음성언어로 동시에 발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말은 감정을 실어 수어로도 음성언어로도 말할 수 있다. 가령 이런 문장이다.



“아, 왜!”

“너가 말했잖아!”

수어의 세계에는 존댓말이 없다. 표정과 행동의 정도로 존댓말과 반말을 표현한다.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수어를 하면 존댓말이 된다. 수어는 수형(손의 모양), 수위(손의 위치), 수동

## Saying YOU with the hands and mouth

Extend your forefinger with the hand closed and gesture at the person you're addressing. Simultaneously mouth or speak the word 'you'.

Sometimes we sign without opening our mouth, and sometimes we mouth or speak the words as we sign. The latter tends to happen more frequently when we are angry. Emotions explode out of the body through action and sound. This mainly happens with single words, as the syntax of KSL is different from that of spoken Korean, and signed phrases cannot simultaneously, or in the same order be uttered in speech. But still, some words can be spoken with emotion while signing. For instance, sentences like “What now!” or “But that's what you said!”

There are no honorifics per se in sign language except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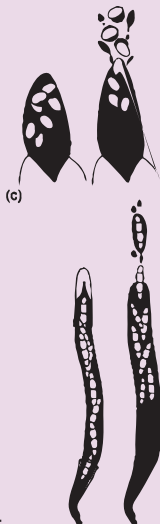


(손의 움직임), 수향(손바닥의 방향)과 같은 수화소와 얼굴 표정, 고개와 머리, 눈썹과 눈의 움직임과 같은 비수지 신호(nonmanual signals)로 이루어진다.

수어로 존댓말을 배운 적이 없다. 학교에 들어가서야 한국어에 존댓말과 반말이 있다는 걸 배웠다. 부모와는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수지 신호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더한다.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하며 서로가 동등하다는 걸 확인한다.

'너'라는 수어는 주먹을 쥔 손에서 검지를 펴고 상대방을 향해 가리킨다. 사물을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다. 존중의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두고 손끝으로 상대방을 가리킨다. 그러나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손가락 전체를 움직여야 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맥락상 존중을 담은 표현으로 해석되지만, 화를 낼 때는 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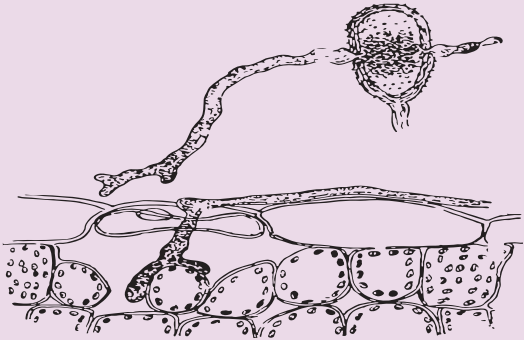
what is conveyed through facial expressions and bodily actions. Bowing one's head politely while signing is what marks the communication as respectful. This is because sign languages are made up of the shape, placement, action, and directionality of the hands as well as nonmanual signals like the movement of the head, the eyebrows, and the eyes.

I never learned honorifics. It was only after I entered school that I became aware of the different registers and terms that exist to express respect and deference by using honorifics or show equality and familiarity using informal words. I still don't use honorifics with my parents. Instead, I signal my respect through visible nonmanual actions. And by looking each other in the eye as we communicate, we constantly confirm our equality.

YOU is signed with a clenched fist and extended forefinger, the tip of the finger gesturing toward the person who's being addressed. The same sign is used to point objects. The respectful version of YOU is signed by opening the palm so it faces up and

다. 화가 난 표정과 함께 음성언어로 정확하게 ‘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소리로도 동작으로도 감정을 실어 말한다. ‘너’라는 수어는  
삿대질같이 느껴지고 ‘너’라는 음성언어는 반말이 된다. 엄마도 검지를  
펴고 정확하게 나를 지칭하여 화를 낸다. 검지로 상대방을 지칭해도  
오해하지 않는 감각을 떠올린다. 손으로 ‘너’를 가리키고 ‘나’를 가리키는  
일, 서로의 눈을 보고 정확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다.



gesturing toward the person with the outstretched hand.  
But I don't use this sign much at home. It's a less efficient sign  
as it's ambiguous whom I'm addressing and as I must move  
my entire hand.

Most of the time context is used to determine the register  
of YOU. This changes when I express my anger though as  
my face is full of anger, and my voice will clearly say the word  
'you'. "But I was only following what you said!" Here both  
sound and action communicate emotion. YOU in this case  
feels like blatant pointing, and the spoken 'you' becomes  
a talking down. When I address her in this manner,  
my mum will extend her finger to indicate that her own anger  
is directed toward me. This makes me consider all the ways  
we avoid misunderstanding even as we address each other  
with pointed fingers. Signing YOU or I/ME is an act of precise  
mutual communication and clear eye contact is maintained  
throughout.

언젠가 엄마는 물었다.

“너 입으로 말 잘해?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음성언어로 말 잘한대.”

엄마는 평생 모를 거다. 내가 음성언어로 말을 얼마나 똑똑하고 조리 있게 하는지. 나는 엄마처럼 풍부한 얼굴 표정을 사용하지 못한다. 수어 어휘도 빈약하다. 어디 가서 모어이자 1차 언어가 수어라고 할 때 마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나의 계승수어 사전은 그 어떤 사전보다 얇고 가벼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발견의 목록을 계속해서 더해보고 싶다.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감각, 어휘, 동작, 그에 새겨진 기억을 통해 나의 유산을 기록한다. 사전 발간 작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 참고 자료

- 1 수경 이삭슨, "유산으로서의 수어 사용자, 코다", 코다코리아-코다 연구사업 대중강연, 2022년 6월 24일.

My mum once asked me, “Are you a good mouth-talker? People say you speak well with sound language.” I guess she will never know how articulate I am in spoken Korean. As for KSL, I don’t have the full gamut of facial expressions that my mum has and utilizes, and my vocabulary is quite weak. It is frankly embarrassing to claim KSL as my mother tongue and first language.

“My Heritage Sign Language Dictionary” may be the slimmest, lightest dictionary ever written. But I would like to continue adding discoveries to my list. I document my inheritance through the engraved memory of the senses, words, and movements that are particular to me. The work of compiling this dictionary is ongoing.

## Reference

- 1 Su Kyong Isakson, "Heritage Signer, CODA", Public Lecture of CODA Research Project by CODA KOREA, 2022.6.24.

## 이길보라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인 자질이라고 믿고,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다. 18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동남아시아를 홀로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를 『길은 학교다』(2009)와 『로드스쿨러』(2009)로 펴냈다. 농부모의 반짝이는 세상을 딸이자 감독의 시선으로 담은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2014)를 찍고 동명의 책(2015)을 출간했다.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을 다룬 영화 「기억의 전쟁」(2018)은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심사위원 특별언급을 받았다. 202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젊은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영 암스테르담 서포트 어워드’를 수상했고, 2020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탈런츠랩: 독스테이션’에 공식 초청되었다. 2021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계 각국의 여성 리더에게 수여하는 ‘젠더 챔피언 어워드’를 받았다.

## Bora Lee-Kil

Bora Lee-Kil writes and makes films, believing that being born to deaf parents made her a natural storyteller. Her books *Road Is School* (2009) and *Road-Schooler* (2009) tell stories about her quitting school at 18 and solo-traveling in Southeast Asia. Her film *Glittering Hands* (2014) shows the beautiful world that her deaf parents encounter from the perspective of a daughter as a film director, and a homonymous book was published in 2015. *A War of Memories*, a film about the different memories of a massacre of civilians committed by Korean soldiers during the Vietnam War, received the jury's special mention for the Wide Angle Competition section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8. Lee-Kil also received the 2020 Young Amsterdam Support Award, given to young artists in Amsterdam and was officially invited to the Berlinale Talents' Doc Station at the 2020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21, she received the Gender Champion Award for women leaders worldwide presented by the Dutch government.

## 사전워크숍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

이 글과 문장은 2022 아르코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의 사전 워크숍인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네 명의 참여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는 3회의 워크숍에서 우정을 전하는 전략, 언어를 다른 감각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야기를 교환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워크숍 이후 4인의 필자들은 함께 나눈 대화와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며, 글의 전문은 티저 웹사이트와 아카이브라운지에서, 문구는 온라인 전시관 <균사체의 정원>의 세계 속에 등장합니다.

## Pre-exhibition Workshop *Worlding-with*

The written works and phrases were produced as part of a pre-exhibition workshop titled *Worlding-with* for the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Bosun, Hannah Seo, Bora Lee-Kil, and Mina Ha, the four participants, discussed the following over three meetings: strategies for sharing friendship, methods of transforming language into other senses, and various ways of exchanging stories. After the workshops, they created written works based on their conversations and their own interests. The entire text can be found on the teaser website and ARKO Archive Lounge, and selected phrases appear in the world of the online exhibition *Mycelium Garden*.

Translated by Emily Yae Won

